

용담유사

1. 다음 풀이가 맞으면 ○, 틀리면 × 를 하시오.

- 1) 용담유사는 포덕 22년(1881년) 6월 해월신사께서 충청도 단양 남면 천동에서 처음 목판본으로 간행하셨다. ()
- 2) 교훈가는 아들과 조카들만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쓰신 글이다. ()
- 3) 교훈가 서론에서 ‘일희일비(一喜一悲)’라고 하신 말씀은 자질들이 수도를 하지 않아서 슬프다고 하신 말씀이다. ()
- 4) 자호 이름을 다시 지으신 뜻은 입신양명을 반드시 이루고자 굳게 맹세하기 위한 것이다. ()
- 5) 천운이 순환하므로 지금은 비록 가난하고 천하게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 집안은 대대로 적선적덕(積善積德)을 해 왔으므로 앞으로는 좋은 일이 올 것이다. ()
- 6) “고친 이름 분명하다”고 하신 말씀은 이름을 고칠 때에 맹세한 것이 그대로 분명하게 이루어졌다는 말씀이다. ()
- 7) 착한 운수는 한울님께서 돌려 놓으셨지만 포태지수는 한울님께서 정하신 것이 아니다. ()
- 8) 인물대접 하는 거동 세상사람 아닌 것 같다고 하신 말씀은 득도 후에 대신사의 행동이 잘 못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
- 9) 무근 설화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근거 없는 말이다. ()
- 10) “부자유친 있지만은 운수조차 유친이며 형제일신 있지만은 운수조차 일신인가”라고 하신 말씀은 부자 형제간 이라고 하더라도 운수는 각각이므로 각각 도를 닦아야 된다고 하신 말씀이다. ()
- 11) 운수가 좋은 사람들은 닦지 아니해도 도성덕립이 되어진다. ()
- 12) 마음공부 하는 데에 제일 좋은 방법은 만권시서(萬卷詩書)를 읽는 것이다. ()
- 13) “이도 역시 천정(天定)이라”는 말씀은 모든 것을 한울님께서 정하신 것이므로 첩첩히 쌓이고 쌓인 험한 일들도 한울님이 정하셨다는 말씀이다. ()
- 14) “천지가 아득해서 정신수습 못할러라”고 하신 말씀은 몸에 갑자기 이상한 일이 일어나므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으셨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
- 15) “개벽시 국초일을 만지장서 나리시고” 하신 말씀은 선천이 개벽 될 때에 이미 내려 주셨다는 말씀이다. ()

- 16) “생전 못본 물형부(物形符)가 종이 위에 완연터라” 고 하신 말씀은 수도하는 교인들은 믿을 수 없는 말이다. ()
- 17) 대신사의 가족들은 대신사께서 영부를 받을 때 모두들 당황했다. ()
- 18) “서학이라 이름하고” “서학에나 싸잡힐까” 라고 한 말은 주위 사람들이 대신사께서 서학을 한다고 꾸며낸 말이다. ()
- 19) “비상천(飛上天) 한다해도” 의 비상천이라는 말은 환원하신 이후를 말씀하신 것이다. ()
- 20) “송백 같은 이 내 절개 금석으로 세울 줄을” 은 지금은 대신사를 음해하지만 앞으로는 오히려 잘 했다고 비를 세워준다는 말이다.()
- 21) 용담가는 용담유사 팔 편 중에서 제일 먼저 지으신 것이다. ()
- 22) “동도는 고국이요” 라고 하신 동도는 신라가 도읍했던 경주를 말씀하신 것이다. ()
- 23) 대신사의 부친은 높은 벼슬을 사시다가 용담으로 돌아 오셨다. ()
- 24) “노이무공(勞而無功)” 이란 한울님께서 사람들에게 진리를 바르게 가르쳐 주시려고 노력을 하셨지만 사람들이 깨우치지 못하므로 공을 이루지 못했다고 하신 말씀이다. ()
- 25) “너를 만나 성공” 이란 한울님께서 대신사님을 통해서 비로소 무극대도를 전해 주시고 진리를 올바르게 깨닫게 해 주셨으므로 한울님께서도 성공하셨다는 말씀이다. ()
- 26) 너희 집안 운수라는 말은 대신사의 조상 대대로 음덕을 쌓아 왔으므로 대신사께서 무극대도를 받으시게 되신 것이므로 너희 집안 운수라고 하신 말씀이다. ()
- 27) “무극대도 닦아내니 오만년지 운수로다” 라고 하신 오만년은 선천 오만년을 말씀하신 것이다. ()
- 28) “지지엽엽 좋은 풍경” 이란 말씀은 물형으로 생긴 구미산의 기암괴석만이 좋은 것이 아니라 많은 나무들의 가지마다 잎마다 모두가 다 좋은 풍경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
- 29) “지성감천” 이란 말은 지극한 정성을 드리면 한울이 감응해 주셔서 원하는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말이다. ()
- 30) 「동국참서」는 이 시대에 맞는 예언서들을 말한다.()
- 31) “이재궁궁” 이란 정감록에 궁궁을 찾아가야 난을 피할 수 있다고 하는 말이다. ()
- 32) 여러 사람들이 써 놓은 많은 책들을 통칭해서 백가시서라고 한다. ()

- 33) “전정이 만리” 라고 하신 말씀은 집으로 돌아올 길이 멀다는 말씀이다. ()
- 34) 효박한 이 세상은 머지않아 저절로 지상천국 될 것이다. ()
- 35) 세상사람을 값어치 없이 아끼지 말고 호시절을 맞이할 준비에 지극 정성해야 한다. ()
- 36) 대신사님의 무극대도가 이 세상에 나온 것도 시운이다. ()

2. 다음 물음에 가장 적합한 답을 골라 ()안에 번호를 쓰시오.

- 1) 교훈가의 내용으로 볼 때 교훈가는 언제 지으셨는가? ()
- 가) 포덕 1년인 경신년
 - 나) 신유년 6월 포덕을 시작하실 때
 - 다) 임술년 3월 은적암에서
 - 라) 신유년 11월 남원으로 가시는 도중에
- 2) 교훈가에서 교훈하시려는 내용이 아닌 것은 어느 것인가? ()
- 가) 성지우성 공경해서 수도를 잘 하도록 하신 것
 - 나) 무극대도는 한울님께 내려 주신 것이다.
 - 다) 포덕은 내 마음대로 하기 시작한 것이다.
 - 라) 한울님 명에 의해서 포덕을 시작하신 것이다.
- 3) 대신사님께서 자호 이름을 고치시고 불출산외하시면서 굳게 맹세하신 뜻은 무엇인가? ()
- 가) 한울님으로부터 제인질병 할 수 있는 영부를 받으시기 위해서
 - 나) 사업의 성공을 하시기 위해서
 - 다) 자질들을 잘 교육하시기 위해서
 - 라) 모두가 다 같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진리를 알아내기 위해서
- 4) 대신사께서 용담으로 돌아오셔서 슬프다고 하신 것은 무엇이 슬프다고 하신 것인가? ()
- 가) 부모님께서 일찍 돌아가셔서
 - 나) 사업이 실패 되어서
 - 다) 영부를 받지 못해서
 - 라) 탕패산업이 되었지만 새로운 진리를 알아내지 못한 자신의 신세

- 5) “고친 자호 방불하고 고친 이름 분명하다” 고 하신 것은 무엇을 뜻하신 말씀인가? ()
- 가) 자와 호, 이름을 좋게 잘 고치셨다는 말씀
 - 나) 자와 호, 이름을 늦게 고치신 것을 후회하신 말씀
 - 다) 자와 호, 이름을 고칠 때에 맹세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말씀
 - 라) 자와 호 이름을 고치지 않았으면 이루어 지지 않았을 것인데 이름을 고쳤으므로 이루어졌다는 말씀
- 6) 동귀일체에 가장 적합한 말은 어느 것인가? ()
- 가) 모든 사람들이 다 천도교를 믿게 된다.
 - 나) 모든 사람들이 선악과 관계없이 한 마음 한 뜻이 된다.
 - 다) 모든 사람들이 천심을 회복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돌아간다.
 - 라)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한 몸만을 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된다.
- 7) 시킨대로 시행하라고 하셨는데 시키지 않으신 것은 어느 것인가? ()
- 가) 정심수도를 하라.
 - 나) 법을 정하고 글을 지으라.
 - 다) 포덕천하를 하라.
 - 라) 모든 일을 네 마음대로 하라.
- 8) 대신사께서 기쁜 마음으로 자부심을 가지게 되신 이유는 무엇인가? ()
- 가) 사업이 잘 될 것 같으므로
 - 나) 자신의 위치가 높아질 것으로 생각되시므로
 - 다) 무극대도를 받게 되신 것이 기뻐서
 - 라) 자신이 받으신 무극대도가 시키신 대로 시행하게 되면 모든 사람이 동귀일체 되고 포덕천하를 하게 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셨으므로
- 9) 대신사께서는 자신이 무극대도를 받으셨다는 말을 부인에게 언제 말씀하셨는가? ()
- 가) 무극대도를 받으신 직후
 - 나) 영부를 잡수시고 몸이 건강해지신 이후
 - 다) 대신사께서 자부심을 가지게 되신 이후
 - 라) 포덕을 시작하신 이후
- 10) ‘통개중문(洞開重門) 하다’란 무슨 뜻인가? ()
- 가) 동네의 문을 열어놓다.

- 나) 안방의 문을 활짝 열다
 다) 무겁게 닫혔던 문을 활짝 열어놓다.
 라) 작은 쪽문을 열다
- 11) “오는 사람 가르치니 불승감당(不勝堪當) 되었더라” 라고 하셨는데 어찌해서 감당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인가? ()
 가) 자신의 도력이 부족해서
 나) 많은 사람을 대접할 식량이 없어서
 다) 집이 작고 비좁아서
 라) 많은 사람들이 몰려옴으로 혼자서 가르칠 수가 없어서
- 12) 모우미성(毛羽未成) 너희들이란 너희들이 어떠하다는 말씀인가? ()
 가) 미성년이라 아직 도를 잘 닦지 못한다는 말씀
 나) 깨닫지 못해서 잘 하지 못한다는 말씀
 다) 털과 깃이 나오지 않은 어린 새 새끼와 같이 입도한지 얼마 안 되어 도를 제대로 닦을 줄 모른다는 말씀
 라) 배운 것도 없고 어리석어서 아무 것도 모른다는 말씀
- 13) 자행자지(自行自止)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
 가) 타의에 의하여 행동하다. 나) 스스로 했다가 말았다가 한다.
 다) 하고 싶지만 하지 않는다. 라) 시키는 대로 말없이 행한다.
- 14) 도성입덕(道成立德)하는 법이 아닌 것은 어느 것인가? ()
 가) 지극한 정성을 드린다.
 나) 바르게 믿는 사람에게 있다.
 다) 마음이 곧 한울님이므로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한다.
 라) 바르게 믿고 바르게 닦으려면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 15) 영부와 관계 되지 않는 것은 어느 것인가? ()
 가) 선약 나) 궁궁
 다) 불사약 라) 약석
- 16) 다음에서 득도의 기쁨을 표현하신 말씀이 아닌 것은? ()
 가) 좋을시고 좋을시고, 이내 신명(身命) 좋을시고
 나) 금(金)을 준들 바꿀소냐, 은(銀)을 준들 바꿀소냐
 다) 십이제국 다 버리고 아국 운수 먼저 하네.

라) 한울님이 정(定)하시니 반수기양(反受其殃) 무섭더라.

17) “개같은 왜적놈이 전세임진 왔다가서 술 썬 일 못했다고 쇠술로 안 먹는 줄 세상사람 누가 알꼬” 하신 말씀은 무엇을 예고하신 말씀인가? ()

- 가) 왜놈들이 다시 침략해 올 것을 예고하신 말씀
- 나) 임진 왜란 때 일본의 침략을 말씀하신 것
- 다) 왜적놈들이 다시는 침략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신 말씀
- 라) 왜놈들은 쇠술로 밥을 안 먹는다는 말씀

18) “내가 또한 신선되어 비상천 한다 해도 개 같은 왜적놈을 한울님께 조화 받아 일야에 멸하고서” 하신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신 것인가? ()

- 가) 왜놈들은 이미 망했다고 하신 말씀
- 나) 앞으로 일본은 망하게 된다고 하신 말씀
- 다) 내가 죽으면 왜적놈이 다시는 침략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
- 라) 내가 죽은 후에 개 같은 왜적놈이 다시 침략해 오더라도 멸하도록 하고 싶다는 말씀

19) ‘한의 비각’과 관련되는 사람은? ()

- 가) 한 무제 나) 최진립
- 다) 청 태종 라) 이여송

20) 문맥상으로 볼 때 “무병지란(無兵之亂)” 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

- 가) 무기와 병정으로 싸우는 난리
- 나) 무(戊)자와 병(丙)자가 들어간 해에 일어나는 난리
- 다) 무기나 병기를 가지지 않고 다른 것을 가지고 싸우는 난리
- 라) 무기와 병기를 가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싸우는 난리

21) 대신사님은 경주의 주산(主山)을 어디라고 하셨는가? ()

- 가) 금강산 나) 백두산
- 다) 구미산 라) 태백산

22) 비감회심(悲感悔心) 절로난다고 하셨는데 왜 비감회심이 나오셨는가? ()

- 가) 가난하고 추워서
- 나) 새로운 진리를 찾아 내지 못하여 부모님께 불효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 다) 몸이 불편해서

라) 먼 길을 걸어 용담까지 왔으므로 다리가 아파서

23) ‘인결은 지령이라’는 무슨 말인가? ()

가) 특출한 사람은 좋은 땅의 기운에서 나온다.

나) 아무 땅에서도 특출한 사람은 나온다.

다) 특출한 사람이 신령하지 못하다.

라) 특별한 사람은 산꼭대기에서 나온다.

24) 몽중노소문답가에서 “팔도명산 다 던지고 천하승지 아닐런가” 천하승지는 어디를 말씀하신 것인가? ()

가) 삼각산

나) 금강산

다) 구미산

라) 곤륜산

25) “득죄부모 아닐런가” 무엇이 부모님께 죄를 짓는 것이 된다고 하신 것인가? ()

가) 아들을 낳아서 대를 잇지 못하는 것

나) 지극한 정성으로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

다) 산제 불공을 하지 않는 것

라) 천하승지에서 살지 않는 것

26) “구목위소(構木爲巢)”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

가) 집을 잘 지었다는 말

나) 집을 크게 지었다는 말

다) 집을 작게 지었다는 말

라) 새들이 둥우리를 틀듯이 나무로 집을 지었다는 말

27) “지국이 비범하고”는 무슨 말인가? ()

가) 국가를 생각하는 것이 범상하지 않다.

나) 범인과 다르게 새로운 국가를 세우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다) 지혜와 도량이 보통이 아니고 뛰어나다.

라) 나라에서 하는 일이 잘 못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28) 대신사께서 주유천하하며 근심하던 세상 모습과 관계없는 것은? ()

가) 군불군 신불신 부불부 자부자

나) 불고천명하는 세대

다) 태평성세 국태민안

라) 효박한 이 세상

29) ‘만고없는 무극대도’가 하원갑을 맞이하여 이 세상에 출현한다는 예언이 나와 있는 가사는? ()

가) 「교훈가」

나) 「안심가」

다) 「권학가」

라) 「몽중노소문답가」

30) “너는 또한 선분 있어” 라고 한 말은 무엇을 뜻한 말인가? ()

가) 선분이 있어서 꿈에서라도 신선을 만났다는 말

나) 선분이 있어서 꿈에 본 신선과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는 말

다) 선분이 있으니 앞으로 잘 해 보라는 말

라) 무극대도를 받아 밝혀내는 것은 선분이 있어야 될 것인데 너는 선분이 있으므로 앞으로 네가 무극대도를 받아 밝히게 될 것이라고 암시해 주신 말

3. 다음에 제시된 용어의 뜻을 알맞게 풀어 쓰시오.

1) 무슨 경륜 포부있어 세간중인 부동귀라. (교훈가 5 절)

경륜(經綸) :

세간중인 부동귀(世間衆人 不同歸) :

2) 현인군자 될것이니 도성입덕 못미칠까. (교훈가 11 절)

현인군자(賢人君子) :

도성입덕(道成立德) :

3) 그럭저럭 창황실색 정신수습 되었더라. (안심가 4 절)

창황실색(愴惶失色) :

정신수습(精神收拾) :

4) 태평성세 다시정해 국태민안 할 것이니 (몽중노소문답가 5 절)

태평성세(太平聖世) :

국태민안(國泰民安) :

4. 다음 ()안에 알맞는 말을 써 넣으시오.

- 1) 이러그러 안심해서 ()()() 지내나니 꿈일런가 잠일런가
()()()() 받아내어 ()()()() 하온후에 다시앉아 생각하니
(교훈가 123 쪽)
- 2) ()()자 지극하면 ()()()() 무엇하며 ()()이라 하였으니(교훈가
143 쪽)
- 3) ()()펴고 붓을드니 생전못본 ()()()가 종이위에 완연터라 (안심가
152 쪽)
- 4) 금수같은 너희()에 ()()()이 미칠소냐 (안심가 157 쪽)
- 5) 십이제국 ()()운수 ()()()()아닐런가 (안심가 159 쪽)
- 6) 한울님 하신말씀 ()()후 ()()년에 네가또한 침이로다 (용담가
171 쪽)
- 7) 태평()() 다시정해 ()()민안 할것이니 ()()지심 두지말고
차차차차 지냈어라 (몽중노소문답가 184 쪽)
- 8) ()()()이 뜻을두면 ()()같은 세상사람 얼푼이
알아내네(몽중노소문답가 185 쪽)

5. 다음 용담유사 구절의 뜻을 풀이하시오.

- 1) 명명한 천지운수 남과같이 타고나서 기공한 이내팔자 일점혈육 없단말가.

- 2) 효박한 이세상에 군불군 신불신과 부불부 자부자를 주소간 탄식하니.

- 3) 우습다 세상사람 불고천명 아닐런가.

- 4) 천만년 지내온들 아니릿자 맹세해도 무심한 구미용담 평지되기 애달하다.

- 5) 나도또한 개벽이후 노이무공 하다가서 너를만나 성공하니 나도성공 너도 득의
너희집안 운수로다.

- 6) 무병지란 지낸후에 살아나는 인생들은 한울님께 복록정해 수명을랑 내게비네.

- 7) 이글보고 개과하여 날본듯이 수도하라 부디부디 이글보고 남과같이 하였어라
너희역시 그렇다가 말래지사 불민하면 날로보고 원망할까.

1. 다음 풀이가 맞으면 ○, 틀리면 × 를 하시오.

교훈가

- 1) 대신사님께서 한글로 쓰신 글 8 편을 신사님께서 가지고 다니시다가 포덕 22 년 6 월에 충청도 단양군 남면 천동(샘골) 여규덕의 집에서 한 권의 책으로 묶어 “용담유사” 라고 이름하여 출판하셨다. (○)
 교훈가는 몇 몇 교사에는 경신년에 지으신 것으로 되어 있지만 내용상으로 본다면 신유년 11 월 남원 은적암으로 가시는 도중에 지으신 것이 분명하다.
- 2) 교훈가는 아들과 조카들을 교훈하는 형식을 취해서 도를 닦는 많은 사람에게 교훈하신 내용이다. (×)
- 3) 그러므로 서론에서는 먼저 “소업없이 길러내니 일희일비 아닐런가” 라고 하여 너희들이 잘 자란 것을 보면 기쁘지만 너희들에게 학업이나 사업, 직업 등을 제대로 마련해 주지 못한 것을 보게 되면 슬픈 일이라고 말씀하셨다. (×)
- 4) 먼저 도를 받으시기 전에 구미용담을 찾아 들어오셔서 사회제도를 고치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고 정신을 개혁해서 모두가 다 같이 잘 사는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진리를 알아내기 위해서 중한 맹세를 다시 하셨다. (×)
- 5) 그 때까지 집안을 돌보지 않고 새로운 진리를 찾아 보셨지만 진리도 찾지 못했고 탕패 산업 된 자신의 신명을 슬프게 여겼다. 부인에게 ‘하늘이 모든 백성을 낳았다’ 는 말과 ‘사람의 명이 한울에 있다’ 는 말씀으로 안빈낙도 하면서 지내보자고 위로 하시고 칠팔삭 지낸후에 무극대도를 받으셨다. (○)
- 6) 무극대도를 받게 된 것은 대대로 적선적덕을 해온 여경으로 인한 것인가? 순환지리에 의해서인 것인가? 하여간 용담으로 돌아와서 자 호 이름을 다시 지으면서 맹세한 그대로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셨다. (○)
 다음에는 한울님께서 대신사에게 하신 말씀을 기록해 놓았으니, 한울님께서 먼저 앞으로 “억조창생 많은 사람들이 한울님 마음을 회복하므로, 한울님 마음과 하나가 되어 한울님 뜻과 일체를 이루어 살게 된다는 것을 대신사도 몰랐다” 고 하셨으며, 대신사께서 자와 호, 이름을 고치면서 불출산외를 맹세하고 도를 구하신 그 뜻이 한울님의 뜻과 같다고 하셨다.
- 7) 한울님께서서는 착한 운수를 둘러놓고 포태의 수를 다시 정해서 대신사님을 내시고 모든 일을 조화 중에 시켜서 무극대도를 내려 준 것이니 세상 사람들이 비방하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정심수도를 해서 내가 시키는 그대로 시행하면

앞으로 포덕천하를 하게 될 것이니 법을 정하고 글을 지어서 세상 사람들을 가르치라고 하신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다. (×)

8) 박씨 사모님께서서는 대신사께서 천사문답을 하고 영부를 그려 잡숫는 행위 등을 보고 많이 걱정을 하셨는데 그것이 한울님으로부터 무극대도를 받던 광경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대신사께서 무극대도를 받게 된 것을 크게 기뻐하셨다. 그동안 대신사께서 불고가사 하셨으므로 가난한 생활 속에 많은 고생을 하면서도 대신사께서 사람을 대하고 처자를 대하는 거동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 같으므로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것을 알았다고 말씀하셨다. (×)

9) 포덕을 시작하니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혼자서 감당을 할 수가 없게 되었는데 천명에 의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근거도 없는 말로 모함하여 잠시 몸을 피하려고 행장을 차려 가지고 수천리 길을 떠나니 털과 깃이 나지 아니한 어린 새와 같은 너희들을 그대로 두고 갈 수가 없어서 이 글을 지어 전해 주니 이 글을 보고 수도를 잘하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

10) 비록 부자 형제간 이라고 하더라도 운수는 각각이므로 도(道)도 각각 닦아야 되니 남들이 수도하는 것을 본을 보고 정성하고 또 정성하며 공경해서 본인이 직접 정심수도를 해야 된다. (○)

도성입덕을 하는 법은 한 가지는 정성을 드려야 되어지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바르게 믿어야 되는 것이니 바르게 믿으려면 스승님께서 가르쳐 준 것을 믿고 행하라고 하셨다.

11) 운수가 비록 좋다고 하더라도 닦지 않고서는 이루어지지 않으니 닦아야만 도성덕립이 되는 것이며, 모든 일은 한울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므로 네 몸에 모시고 있는 한울님을 굳게 믿으라는 것을 말씀하셨다. (×)

12) 우리 도는 수련을 할 때에 주문을 외우면서 수련을 하는 것이므로 열 세자 주문을 지성으로 외우게 되면 만권의 시서를 읽은 것보다도 도성덕립이 더 빨리 될 것이다. 도를 닦는 근본은 마음을 배우는 것이니 그 근본을 잊지 않고 마음을 배우면 현인군자가 되고 도성입덕이 될 것이다. (×)

안심가

안심가는 집안 부녀자들을 상대로 쓰는 형식으로 쓰셨다.

13) 먼저 도를 받으시기 전 일을 생각해 보면 첩첩이 험한 고생뿐이었다. 모든 것은 한울님께서 정하신 것이니 이것도 역시 한울님이 정하신 것이라 아니 받으려 한다면 도리어 양화를 받게 될 것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하셨다. (○)

14) 용담으로 돌아오신 후 경신년 4 월 초 5 일부터 한울님으로부터 도를 받으시고 영부를 받으신 내용을 말씀하였으니, 영부를 받기 전에 먼저 천지가 아득해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상태에서 공중에서 천지가 진동 하는 듯한 말씀이 들리고 (○)

15) 새벽이 되어 처음으로 나라를 세울 때에는 “만지장서를 내려 주시고 십이제국을 다 버려두고 우리나라 운수부터 먼저 하신다” 고 하는 말씀이 들려왔으며, (×)

16) 그날 밤에 영부를 받게 되었는데 백지를 펴놓고 붓을 드니 생전 못 본 물형부가 종이 위에 완연하게 나타났으므로 한울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그대로 그려서 물에 타서 잡수어 보셨다. (×)

17) 대신사께서 영부를 받는 광경을 본 가족들은 “아버님 이웬일고 정신수습하옵소서 백지펴고 붓을드니 물형부 있단말씀 그도또한 혼미로다” 하며 놀라고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다. (○)

18) 천명으로 도를 받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싫어하여 대신사님을 서학을 하는 사람들과 휩싸여서 서학을 용하게 잘 안다고 비방하였다. (○)

19) 우리나라의 기험한 운수를 말씀하셨으니, “내가 또한 신선되어 비상천 한다해도 개 같은 왜적놈을 한울님께 조화 받아 일야에 멸하고서” 하신 말씀은 내가 죽은 후에 개 같은 왜적놈이 다시 침략해 올 것이라고 하신 말씀이며 복록은 한울님께 빌고 수명은 대신사님께 빈다고 하셨다. (○)

20) 대신사님 가문의 음덕과 대신사께서 곧고 바른 마음으로 세상을 걱정하신 그 정신과 한결같은 구도정진으로 도를 받았으나 지금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여 대신사님을 음해하지만 앞으로는 금석으로 비를 세워 줄 것이며, 우리나라의 운수가 기험하지만 한울님께서 대신사를 내시어 우리나라를 보전하게 하셨으니 근심하지 말고 안심하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

용담가

21) 용담가는 가사 팔편 중 제일 먼저 지으신 것이다. (○)

새로운 진리를 얻기 위해 주유천하 하시다가 용담에 돌아와서 한울님으로부터 무극대도를 받아 새로운 진리를 깨닫게 되었으므로 그 기쁜 심정으로 구미산을 다시 보니 구미산은 천하에 제일가는 명승지로 보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기쁜 심정을 말씀해 놓으신 것이 용담가이다.

22) 우리나라와 자신이 태어난 경주(동읍, 동도, 동도신부)를 찬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사십이 될 때까지 자신은 아무 것도 이루어 놓은 것이 없으니, 부모님께 불효를 했다는 생각이 더욱 간절하여 슬픈 생각이 저절로 나온다고 말씀하셨다. (○)

23) 아버님께서도 구미산 밑에서 태어나 도덕과 문장을 닦아 훌륭한 분이 되셨으나 세상에 뜻을 펴지 못한 것을 “가련하다 우리부친 입신양명 못하시고 구미산하

일정각을 용담이라 이름하고 산림처사 일포의로 후세에 전탄말가” 하며 안타까워 하셨다. (×)

24) 그럭저럭 지내다가 경신년 사월에 만고 없는 무극대도를 받으셨다. 한울님께서 선천이 개벽된 후 오만년 무극대도를 받아 천지가 곧 부모라는 이치를 깨달은 사람은 내가 처음이다. (○)

25) 이제 나도 성공한 것이고 너도 너의 뜻을 이루게 된 것이니 (○)

26) 이것은 너희 집의 대대로 쌓아온 음덕으로 인한 것이니 너희 집안 운수라고 말씀하셨다. (○)

27) 이 말씀을 들은 후에 대신사님의 마음은 기쁘게 되셨으며, 구미산에서 무극대도를 닦고 보니 이운은 후천 5 만년을 내려갈 운이므로 좋아하신 것이다. 대신사께서 득도하신 경신 4 월 5 일 이후를 후천이라 하고 무극대도는 후천 오만년을 선도할 진리이다. (×)

28) 득도의 기쁘고 좋은 마음으로 구미산을 보니 기암괴석은 물론 골짜기 나뭇잎들 까지도 아름답게 보였고 구미산이 천하 승지로 보이신 것이다. (○)

몽중노소문답가

몽중노소문답가는 대신사께서 자신에 대한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것으로서 자신이 태어나기 전과 태어난 후 성장과정의 행한 일들과 금강산에서 꿈속에서 만난 신선과 대화하신 내용을 소재로 해서 쓰신 것이다.

29) 대신사께서 태어나기 전에 부모님께서 늙도록 자식이 없으므로 자식을 낳아 대를 잇지 못하는 것도 부모님께 죄를 짓는 것이므로 아들을 낳아 후사를 잇도록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재산을 탕진하면서 지극히 정성드리면 소원을 이룬다는 옛말대로 산에 제사를 지내고 불전에 시주하면서 지극한 정성을 드리셨다.

옛날부터 “결출한 인물은 땅의 영기로 태어나고 명기는 반드시 명산 아래에 있다” 는 말이 있으니 천하승지인 금강산을 찾아가서 새가 등우리를 틀듯이 나무로 집을 짓고 살았는데 지성감천으로 아이를 배게 되어 아들애기를 낳았다는 것을 말씀하셨다. (○)

그 아이가 십세를 지나니 지혜와 국량이 범인들과 같지 않고 재주와 그릇이 다른 사람들과 달라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해야 할 도리를 바르게 행하지 못하는 것을 탄식하였다.

30) 세상 인심풍속을 살펴보기 위해서 팔도강산을 돌아다니면서 살펴보니 세상 사람들은 괴이한 동국참서인 정감록이란 예언서에 (×)

31) 이재궁궁이라고 하였으니 피난을 하려면 궁궁촌을 찾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뿐이었으므로 (○)

- 32) 이제 돌아가서 여러 사람들이 써 놓은 많은 책(百家詩書)이나 살펴봐야 되겠다고 생각하시고 (○)
백가시서(百家詩書) : 제자백가(諸子百家)의 많은 사상을 담은 글과 책들.
- 33) “전정이 만리” 라고 해야 할 일 가야할 길이 멀다 하며 돌아오시다가 금강산 상상봉에 올라가서 산세 구경을 하고 잠깐 앉아 쉬다가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신선을 만나 대화를 하게 되었다. (×)
- 34) 하월잡이 지나고 상월잡이 되면 무극대도가 이 세상에 나와서 모두가 다 같이 잘 사는 세상이 될 것이다. (×)
- 35) “효박한 세상사람 값을것이 무엇이며” 이를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상대하여 시비를 논하려고 말고 무극대도의 가르침대로 시행하는 데에 극경 극성하는 것이 최선의 잘 사는 방법이 될 것이다. (○)
- 36) 무극대도를 밝혀내는 것은 인연이 있는 사람이어야 될 것인데 너는 선분이 있으니 꼭 깨달을 것이라는 암시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렇다면 내가 무극대도를 밝혀내는 주인공이 될지도 모른다.” 는 생각을 하고 돌아오셨는데 그 후에 과연 자신을 통해서 만고 없는 무극대도를 받게 되었다는 말씀이다. (○)

2. 다음 물음에 가장 적합한 답을 골라 ()안에 번호를 쓰시오.

- 1) 라 2) 다 3) 라 4) 라 5) 다 6) 다 7) 라 8) 라
9) 다 * “이말씀 들은후에 심독희(心獨喜) 자부(自負)로다 그제야 이날부터 부처가 마주앉아 이말저말 다한후에 희희낙담 그뿐일세” (교훈가 131 쪽)
- 10) 다 * 별로 드나드는 사람이 없으니 가끔 여단을 뿐이던 문을 닫혀 있을 사이 없이 열어놓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 11) 라 12) 다
13) 나 * 제멋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그치고 싶으면 그치다.
- 14) 다 「교훈가」 11 절 경전 140,141 쪽 참조
- 15) 라 16) 라 17) 가 18) 라
19) 다 * 정묘호란 후 청 태종의 2 차 침입 시(1636 년 12 월 ~ 1637 년 1 월) 10 만 대군을 끌고 오자 인조 14 년 삼전도에서 항복, 굴욕적인 9 개 강화조약을 맺었다. 이로 인해 명나라와의 관계를 끊게 되고, 청은 삼전도의 전승을 기념하기 위해 ‘한의 비각’ 을 세웠다. “중수한 한의 비각 헐고나니 초개같고” 란 청의 위엄 때문에 ‘한의 비각’ 에 감히 손대지 못하다가 허물어 버리고 나니 하잘것 없는 지푸라기와 다름이 없더라는 말씀이다.
- 20) 다
21) 다 * 모든 산들은 다 아름답지만 그 중에서도 무극대도의 탄생이 있었던 구미산은 도읍지인 동도(경주)의 서쪽에 위치해 있는 주가 되는 산이 분명하다.

- 22) 나
 23) 가 * 특출한 인물은 좋은 땅의 좋은 기운을 타고 세상에 태어난다는 것이다.
 24) 나 25) 가 「몽중노소문답가」 2 절 경전 176 쪽 참조
 26) 라 27) 다 28) 다
 29) 라 * 대신사께서 금강산을 두루 다니다가 쉬는 동안 잠깐 잠이 들었을 때에 꿈에 날개옷을 입은 도사가 만고없는 무극대도가 이 세상에 나올 천운이 둘러 있다는 말씀을 해 주었다.
 30) 라

3. 다음에 제시된 용어의 뜻을 알맞게 풀어 쓰시오.

- 1) 경륜(經綸) : 천하를 다스릴 큰 계획이나 포부
 세간중인 부동귀(世間衆人 不同歸) : 대신사께서 입춘날 쓰신 입춘시. 도기장준 사불입 세간중인 부동귀 (道氣長存 邪不入 世間衆人 不同歸)
 * 제세안민의 도를 구하고자 평생을 근심하시던 대신사께서 세상을 원만하게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나 계책이라도 세울 포부를 가지고 용담에 돌아오시어 ‘내가 구하고자 하는 도를 얻기 전에는 세속의 못 사람들과 어울려 돌아가지는 않으리라’고 굳은 결심을 하셨다.
- 2) 현인군자(賢人君子) : 학식이 높고 행실이 어질고 총명한 사람
 도성입덕(道成立德) : 도를 이루고 덕을 세움
- 3) 창황실색(愴惶失色) : 어지럽고 두려워 정신을 차리지 못하다.
 정신수습(精神收拾) : 정신을 차리고 가다듬음
 * 대신사께서 무극대도를 받으실 때에 처음으로 신비한 종교체험을 하게 되어 놀랍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 상태라 얼굴색이 변하고 어리둥절하다가 겨우겨우 정신을 차리고 가다듬게 되었다는 것이다.
- 4) 태평성세(太平聖世) : 어질고 착한 임금이 다스리는 태평한 세상
 국태민안(國泰民安) : 나라가 태평하고 백성 살기가 편안함
 * 무극대도의 가르침대로만 살아간다면 어진사람이 정사를 보게되니까 성인들이 사는 세상처럼 나라도 크게 번성하여 살기좋은 세상이 되고 백성들도 편안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다.

4. 다음 ()안에 알맞는 말을 써 넣으시오.

- 1) 칠팔삭, 무극대도(無極大道), 정심수신(正心修身)
 2) 열세자, 만권시서(萬卷詩書), 심학(心學)
 3) 백지(白紙), 물형부(物形符)
 4) 몸, 불사약(不死藥)
 5) 괴질(怪疾), 다시개벽(開闢)

- 6) 개벽(開闢) 오만(五萬)
- 7) 성세(聖世), 국태(國泰), 개탄(慨歎)
- 8) 한울님, 금수(禽獸)

5. 다음 용담유사 구절의 뜻을 풀이하시오.

- 1) 천지의 한 치의 오차도 어김이 없이 계획대로 진행되는 운수에 따라 나와 남이 다를 바가 없이 태어나긴 했는데 운명이 기구하여 슬하에 자녀가 없단 말인가.
- 2) 모든 사람들이 윤리 도덕을 지키지 않아서 지금의 세상에 임금이 임금답지 못하고 신하가 신하답지 못하고 아버지가 아버지답지 못하고 자식이 자식답지 못한 것을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한숨 쉬며 근심하는 것.
- 3) 한울님을 모시고 있는 존엄한 존재라는 것을 아직 깨우치지 못한 채로 세속에 물들어 사는 사람들은 한울의 명을 돌아볼 줄을 모른다는 것.
- 4) 후학들이 무극대도의 뜻을 알아 지키면 구미용담이 무극대도의 탄생지인 성지이지만, 가르침을 잘 지키지 않는다면 구미용담은 평지나 다름이 없게 될까봐 염려 하신 말씀.
- 5) 한울님께서 천지를 시판한 후에도 계속하여 극성극경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다가 대신사의 지극정성에 감천하게 되었으니 한울님도 성공한 것이요. 제세안민의 도를 찾던 대신사님도 뜻하던 바를 이루게 된 것이니 집안 대대로 쌓아놓은 적선적덕의 여경인 것이다.
- 6) 병기 없는 난리(질병, 대기변복, 환경오염, 등등)가 지난 후에 경천명 순천리하여 살아남은 사람들은 한울님에게서 품부 받은 몸과 마음을 잘 지키고 닦아 대신사의 심법을 확연하게 깨달아 지키는데 따라 다르게 된다.
- 7) 교훈가의 가르침에 따라 과거를 반성하여 지금 대신사님이 앞에서 솔선수범하고 계시다고 생각하여 본을 삼고 또 잘 하고 있는 사람들이 성지우성 하는 것을 본받아 수도하여라. 너희들이 이 가르침을 바르게 지키지 않아서 결과가 좋지 않게 되면 나를 원망하게 될 터이니 내가 보고 있는 듯이 잘 지켜 행하라.

